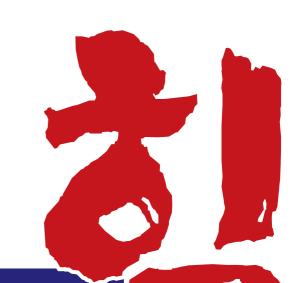


송창근 KMK글로벌 스포츠그룹 회장, 새만금잼버리 홍보 대사 위촉

MONTHLY KOFA

丑四9

OOTWEAR



Tel. 021-3002 9090,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 Vol. 104 2023/05

KOFA 제인니한국신발업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Monthly Kofa 2023년 05월 10일 / 단기4356년 KDFA 제인니한국신발업의회

송창근 KMK글로벌 스포츠그룹 회장, 새만금잼버리 홍보대사 위촉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챔버리」 전라북도 홍보대사 위촉 4. 21.(급) 전라북도

▲김관영 전북지사와 송창근 KMK글로벌 스포츠그룹 회장(오른쪽)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21일 송창근 KMK 글로벌 스포츠그룹 회장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 카우트잼버리' 홍보대사로 위 초해다

송 회장은 1989년 KMK를 설

립해 글로벌 스포츠 신발 제 조업에 종사했으며 인도네시 아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등 을 역임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참가 국가들을 상대로 홍보와 자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적극적으로 알 리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달 김이재 경인교육대 교수와 이광연 파 시픽코리아 회장을 새만금 세 계잼버리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관 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70개국에서 5만명 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8월 $1\sim12$ 일 부안군 새만금 야영 장 일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기탁

경남도는 재인도네시아 경남 도민회 전현직 회장단이 25일 도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 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전 했다.

이날 도청을 찾은 재인도네시 아 경남도민회 제경종 회장(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 고문) 과 김주철 초대회장은 각각 고성군과 하동군 출신으로 인 도네시아에서 사업가 및 한인 회 활동을 하고 있다.

제경종 회장은 "평소에도 고향만 생각하면 어렵게 생활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며 "올해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경남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들 회장단은 답례품으로 받 은 300만원 상당의 쌀도 고향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전현직 회 장단, 고향사랑기부금 기택경남도 제

사랑기부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 층에 기부하기로 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 제를 활성화해 지역과 국가균 형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제 도"라며 "기부금은 지역 발 전을 위해 소중한 곳에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50만 재외동포 최대 경제 네트워크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 개막

월드옥타 공동 주최, 67개국 800여 명 참가 최초 일본에서 개최 24년째 개최되는 최대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에 한국 중소기업 관심 고조

750만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 옥타·회장 장영식)가 주최하는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가 18일 오후 일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성대한 막을 올 렸다.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모국 투자를 마련하는 자리로 올해는 67개국 142개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회원 600여명과 국내 중소기업인, 국회와 정부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 등총 800여명이 참가했다.

개회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장영식 회장의 개회사, 연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 개막 (사진= 세계한인무역협회)

합뉴스 성기홍 사장 환영사와 윤덕민 주일본 특명전권대사, 국회 김영주 부의장, 이원욱 의원, 한무경 의원, 김영환 충 청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 사 축사, 산업자원부와 외교 부 등 정부 유공자 포상 등이 지해됐다. 개회식에는 윤덕민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국회 김영 주 부의장, 설훈 의원, 이원 욱 의원, 김병욱 의원, 한무경 의원, 이주환 의원, 고영인 의 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 환 충북도지사, 김성곤 재외 동포재단 이사장, 안경률 국 제통상전략연구원장, 김광일 민주평통 일본지역회의 부의 장, 월드옥타 김무성 고문, 김 정훈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 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월드 옥타의 조병태·천용수·고 석화·김우재·박기출·하 용화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 규택·김무성·김정훈·박 상은 · 신현대 고문, 월드옥 타 차봉규 이사장과 21대 집 행부 주요 임원들이 함께 자 리했다.

장영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월드옥타는 750만 재외동포의 대표 경제단체이자 애국 단체로 조국경제가 어려울 때함께하며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한인경제 발전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모국 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핵심적 가교역활을 하는 단체로 성장해나갈 것"을 역설했다.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는 21 일까지 진행되며, 대회 기간 중 18일 임원회의, 국회 세계 한인경제포럼 춘계 세미나, 글로벌마케터워크숍, 19일 통 상위원회 회의, 수출상담회, 일본지역 해외취업자 정착 고 민상담회, 국제통상전략연연 구원 춘계 세미나, 20일 차세 대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 이 사회, 총회를 끝으로 대회 일 정이 마무리 된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981년 모국기업의수출증대를 통한 모국경제에기여를 핵심가치로 재외동포무역인들이 창립한 단체이다.협회는 창립이래 모국상품 구매운동,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차세대무역인 양성, 모국청년 해외취업을 비롯한 모국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67개국 142개도시에 지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7,000여 명의 CEO와 26,000여 명의 차세대경제인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최대경제단체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높아진 세계 부채 위험으로부터 다소 안전한 편

한 경제학자는 개발도상국들 이 부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 라들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 면, 쁘르마따 은행 수석 이코 노미스트 조수아 빠데데는 26 일 "인도네시아의 국가 부채 는 국내 총생산의 39%에 불 과하며,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 치"라며 인도네시아는 상대 적으로 부채 위기 위험으로부 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GDP 대 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 무역 경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국가 부채는 작년 GDP의 78.29%, 태국은 같은 해 GDP의 59.61%였다. 일 부 국가들은 심지어 GDP의 100%를 넘어섰는데, 이는 국 가의 총 부채가 그들의 경제 가 1년 동안 생산한 것을 초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 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 주 요 중앙은행들이 주도하는 금 리 인상에 이어 신흥국과 개 발도상국이 "체계적인 국가 채무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압박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흥 시장 경제의 약 4분의 1이 높 은 위험에 처해 있는 등 취약 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

IMF는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우, 약 56%가 이미 부채에 시달리고 있거나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변동 금리로 발행되고 미국 달러로 표시된 대외 부



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 은 국가들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점진적으 로 국가 부채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이 줄어들었으며, 이 수치는 팬테믹 이전의 25% 이상에서 지난해 14.36%로 감소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조수아는 인 도네시아의 외채도 상대적으 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인데르밋 길(Indermit Gill)은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반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한동 안 신흥 시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가 개발도상국들의 우려 에 주목하는 동안 길은 최빈 국들의 고통을 지적했다.

길은 G20에 의해 설정된 공 통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부 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일 부 조치가 취해졌지만, 정책 은 부족했고 부담의 일부만 완화했다고 말했다.

길은 국내 차입금을 국가의

부채 지속 가능성 수준 평가 에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과 같은 부채 문제 증가 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 구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조수아는 개 발도상국에서 부채 위기가 실 제로 현실화된다면, 인도네시 아는 파급 효과를 느낄 수 있 지만 인도네시아의 건전한 부 채 상태, 탄탄한 성장, 강력한 국내 소비 및 투자로 이를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5.75%로 3개월 연속 동결

<mark>"투자·무역 견실하고 물가 안정적…</mark> 루피아화 강세 계속될 듯"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이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BI는 18일(현지시간) 통화 정책회의 후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채 권(RRP) 금리를 5.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BI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해 3.5%이던 기준금리를 5.75%까지 끌 어 올렸다.

하지만 2월에 금리를 동결 한 뒤 이날까지 3개월 연속 동결을 이어갔다.

BI의 이번 결정은 금융시 장 전망과 일치했다. 이달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로 이터 통신이 30명의 이코 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 이 BI의 금리 동결을 예상 했다.

BI가 금리를 동결한 것은 그만큼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페르 와르지요 BI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목표치로 내려가 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휘 발유 등 정부가 가격을 통 제하는 품목과 식품 가격 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 가 상승률은 BI의 목표치 (2~4%)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단 [BI

지난달 인도네시아 소비자물 가 상승률은 연 4.97%를 기 록, 7개월 만에 5% 아래로 떨 어졌다. 또 근원물가상승률은 2.94%로 8개월 만에 3% 아 래로 내려갔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도 강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 계에 왔다는 금융시장의 평가 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 험자산으로 여겨지는 루피아 화의 가치는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달러화 대비 3% 넘게 뛰

페리 총재는 인도네시아 경제 가 탄탄하고 금융시장으로 외 국 자본 유입이 이어지고 있 어 루피아화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그는 "국내 경제 성장이 강 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투 자와 무역이 견실하고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늘어나 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이 아무도 예기치 않았던 시점에 간 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 를 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깜짝 발표함에 따라 2024 대선은 삼 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24일 자카르타포스트 가 보도했다.

당초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권 정당들이 거대 정당연합을 만들 어 대선 판도를 간단히 압도하려 했던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 라당 총재의 필승 전략은 전면수 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여권 정당 지도부는 조코위 대 통령을 지지하는 거대 정당연합 구축 담론을 내세워 2024 대선 에 나스뎀당이 대통령 후보로 추 대한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 타 주지사를 상대로 대선 1차 투 표 한 번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 머쥐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발표를 오랫동 안 미적거리면서 어쩌면 뿌안 마 하라니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내주고 쁘라보워와 손잡거나 거 대정당연합에 합류해 헤게모니 를 다툴 것처럼 보였던 투쟁민주 당이 갑자기 간자르를 대통령 후 보로 전격 추대하면서 삼파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간자르, 아니스, 쁘 라보워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 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것이 거의 확 실시된다.

결국 여권 정당들은 이제 간자르 와 쁘라보워 두 사람 중 양자택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권 거대정당연합 구성은 실현될 가 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간자르 효과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투쟁민주당이 이제 간자르 지지 에 동참할 정당들과의 연대를 모 색하기 시작하면서 거대정당연 합을 구성하려던 여권 정당에 적 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다.

투쟁민주당은 단일 정당으로서 독자적으로 대선후보를 낼 자격

을 갖춘 유일한 정당이다. 메가 와띠는 장녀 뿌안 마하라니 국회 의장에게 이둘 피뜨리 휴무기간 에 다른 당들과 선거제휴 가능성 을 타진해 보도록 지시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만간 KIB가 내부 협의를 가질 것 이라고도 덧붙였다.

간자르-쁘라보워 러닝메이트 가 능성?

메가와띠가 간자르를 주저앉히 고 뿌안을 대선후보로 내세울 것 깔린 것이었다.

쁘라보워는 부통령직에 관심이 없다. 이미 두 차례 대선에 출마 했던 쁘라보워는 사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경력 그리고 카리스마까지 모두 갖추

라떼기스 뽈리띠까(TriasStrategisPolitika)의 정치분석가 아궁 바스꼬로(Agung Baskoro)는 간 자르와 쁘라보워가 제휴하느냐 의 여부는 그 사이에서 연대와 제휴를 조율하는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의 역량과 기민함에 달려 있 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총 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도 75%로 여전히 정치적으로 강력 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인 기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자 원봉사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각 당의 지도자들이 총선에서 코 트테일 효과를 누리길 기대하며 스스로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상 황에서 여러 당들이 제휴한 정당 연합에서도 서로의 이해가 합치 되는 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특히 투쟁민주당이 거대정당연 합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간자르 가 정당연합의 대통령 후보가 되 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상황이므 로 조코위 대통령이 이를 적절히 조율할 수 없다면 대선 삼파전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바스꼬로 는 전망했다.

결집하는 아니스 캠프

바스꼬로는 2024 대선이 3파 전으로 진행되든, 2파전으로 가 든 아니스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 한 '통합을 위한 변화연대(KPP 이하 변화연대)' 측으로서는 투 쟁민주당의 간자르 대통령 후보 지명이 야당 결집의 계기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당연합 차원에서 아니스에게 가장 적절 한 러닝메이트를 찾도록 소속 정 당들을 독려하는 효과를 낳을 것 이라고 보았다.

나스뎀당을 주축으로 민주당과 복지정의당(PKS)이 제휴하고 있 는 변화연대는 아직 누가 아니스 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가 될 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지난 4월 21일 보고르에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왼쪽)가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 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후 악수를 나눴다. (서잔=자카르타포스트/PDI-P)

2024 인도네시아 대선, 3파전 불가피

간자르 지지에 호의적인 입장이

특히 골까르당이 이끄는 통합인 도네시아연대(KIB)의 약한 고리 인 통합개발당(PPP)은 간자르를 '정치적 대가족의 일원'으로

묘사했다 통합개발당 소속 아흐맛 바이도 위(Achmad Baidowi) 의원은 조 만간 열릴 전국실무회의에서 당 이 지지할 대통령 후배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개발당의 일부 지방지회에서는 이미 간자

하고 있다. KIB의 또 다른 소속 정당인 국 민수권당(PAN) 역시 KIB가 투쟁 민주당과 동맹 결성에 대한 회담 개최에 관심을 표명했다.

르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

줄키플리 하산 국민수권당 당대 표는 PAN이 다른 어떤 정당들과 도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었다 고 지난 주말 입장을 밝혔다. 그 는 투쟁민주당이 간자르를 대통 령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조 이란 예측을 전제로 대선판을 짜 고 있던 쁘라보워와 여타 여권 정당들은 간자르의 2024 대선 대통령후보 지명으로 사실상 허 를 찔렸다.

간자르와 쁘라보워가 제휴해 원 팀을 꾸린다면 대선 필승을 기할 수 있지만 투쟁민주당과 그린드 라당 모두 자당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양당의 제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린드라당은 이미 국민각성당 (PKB)과 제휴해 대인도네시아각 성연대(KKIR)라는 정당연합을 만 들어 대선판 입장 요건을 갖춘 상태여서 투쟁민주당이나 골까 르당 주도의 통합인도네시아연 대(KIB) 정당연합과 제휴하지 않 아도 대선후보를 낼 수 있는 상 황이다.

그린드라당이 그간 투쟁민주당 의 거대정당연합 참여를 촉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쁘라보워 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전제가

문의처: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muns.id

Email: munscb@muns.id

었는데 이제 와서 그가 누군가의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되어 대선 에 나가는 수모를 감수한다는 것 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22일(토) 간자르의 러닝메 이트가 될 의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쁘라보워는 "우리 당은 나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으며 현재 우리당의 입지는 매우 굳건 하다." 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현 국방장관이기도 한 쁘라보워 는 여러 정당의 고위급 엘리트들 과 잇단 만남을 가지며 2024 대 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 라서 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 도 그를 자신의 위업을 이을 계 승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도된 바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고 배를 마셨으나 현재는 간자르와 경합하며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 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파워브로커 조코위

여론조사기관 뜨리아스 스뜨



R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 1. 위치: Rangkas Bitung, Lebak, Banten
- 2. 면적: 100 hr (1,000,000 M2)
-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 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 5. Kabupaten Lebak 인구수: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 6. 최저임금: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 적 산업에 적합함.
- 분양가: Rp 800 000/M2
 -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PT. Muns Cipta Bangun

| テレレー | 7171 | 401171 |
|-----------------------|--------|--------|
| 출발지 | 거리 | 소요시간 |
| Gerbang Tol Tangerang | 85 Km | 1H 10M |
| Air Port (CGK) | 103 Km | 1H 30M |
| SCBD Jakarta | 108 Km | 1H 40M |
| Taniung Priok Port | 121 Km | 2H 30M |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b@muns.id, munscb33@gmail.com www.muns.id

1. 개요

2023년 3월, 한국국세청과 인도 네시아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이 신청한 한국인도네시 아 쌍방 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에 대해 각각 승인 하고 우리나라 모기업에게 APA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번 한 국-인도네시아 APA 체결은 우리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해외 진출기업이 신청한 APA에 대해 우 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간 APA 를 체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APA는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 으로 판단되는 자회사의 소재국에 따라.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청하는 Inbound case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 모기업이 신청하 는 Out-bound cas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누적처리기준 Out-bound case 비중은 2008년 26%에서 2021년 37%로 증가하 였으며, 우리나라 본사 단계에서의 Out-bound 이전가격 정책수립 및 글로벌 이전가격 관리역량 강화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인도네시 아 APA 체결과 관련된 주요 배경 과 성공요소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도의 장점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글로 벌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그 룹에게 있어 어느 한 소재국에서 의 과세는 그룹단위에서 다른 소 재국과의 이중과세를 야기할 수 있다. 이중과세는 다국적기업그룹 의 경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단 과세가 이 루어지면 관련 당사국 간에 이중 과세를 해소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중과 세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전가격 정 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가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해당 제도에 따라, 납세자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한국-인도네시아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최초 타결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 에 서로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APA 연차보고서'에서는 APA가 납세자 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APA의 승인조건을 충족하여 소 득을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이 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위험 없

■ 세무상 불확실성의 제거

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으며, 납세 자는 기존에 이전가격 관련 세무 조사 대응 등에 투입하였던 인력 과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 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 용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이중과세 문제 해결 APA의 신청 및 승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전가격 문제를 세무조 사 과정에서 해결하는 데 소요되 는 비용 대비 저렴하며, 양국 과 세당국이 상호합의하는 쌍방 APA 의 경우에는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보상조정과 대응조정이 이루 어져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 하지 않거나 이중과세를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다.

■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APA는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대리 인의 조력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전문가에 의해 처리되며, APA의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활발한 의견 교류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의 이전가격세제의 집행과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사무처리 규정 제81조에서는 "세무조사대 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 승인이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사 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의 해당 거래

에 대한 이전가격부문에 한하여 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다국적기업그룹에 게 APA는 이전가격 조사가 유발 할 수 있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배 제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3.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현지 조세분쟁 가능성 및 APA를 통한 해결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7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 대 국으로 그 중 15세~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70.7%에 달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니켈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 되어 있으며, 임금 수준이 매우 낮 은 점과 길게 자리한 국토의 특성 으로 여러 동남아 국가와 인접해 있다는 점으로 인해 국내외 제조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과세당 국 또한 공격적인 과세성향을 보 이고 있으며, 세무조사 추징 목표 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거나, 환급 신 청시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 신청 액만큼 과세하여 환급액을 돌려주 지 않고 중소기업까지도 이전가격 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 하는 등 많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 업들이 우리나라 본사와의 국제거 래에 대한 조세분쟁 가능성에 노 출되어있다.

이처럼 조세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 아의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정상가격의 산출방법과 정 상가격 범위 등을 사전에 승인받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 이전가격 과세 위험 제거

우리나라의 경우 APA가 신청되

어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신청 된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가 격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으며, APA가 승인된 이후에는 승인대상 사업연도 동안 한국 및 인도네시 아 내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 조사가 면제되므로 이중과세의 위 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소급적 용 가능

APA 신청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과거사업연도에 한 하여 그 과거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소급(Roll-back)하여 신청이 가능 하다. 한국의 경우 쌍방APA는 7 년, 일방APA는 5년을 소급하여 신 청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 우 쌍방APA와 일방APA 모두 5년 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쌍방APA의 경우, 세무조사 가 종결되지 않은 과거 사업연도 에 대해서도 소급대상사업연도에 포함하여 협의가 진행될 수 있으 며, 미래에 대한 사전승인과 더불 어 과거에 발생한 이중과세를 해 소할 수 있다.

■ 이전가격 정책의 안정적 운영 및 비용절감

APA를 승인받은 회사는 APA에서 합의된 정상가격범위 내에서 회사 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하도록 안정적인 이전가격 정 책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전가 격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이전가격 분쟁 및 불복 등의 대응 을 위해 소요되는 내부인적자원을 다른 사업운영기능을 위해 재배치 할 수 있으며, 소송 등에 대응하는 데 발생되는 외부 자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그룹의 이익구조 및 현금흐름 최적화

APA를 승인받은 회사는 APA 합의 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잉여이익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그룹 내 이익구조 및 현

금흐름의 최적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4. 한국-인도네시아 APA 성공의 중요 요소

한국-인도네시아 APA가 성공적 으로 타결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 한 첫 단계는 분석대상기업인 자 회사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현지 에서 APA 경험이 있는 실력있는 자문사를 발굴하여 협업하는 것 이다. 현지 자문사를 통해 인도네 시아 국세청(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 DGT) 국제조세국 세무공 무원들의 특징과 한국 국세청과의 APA 접근방식 차이를 이해하고 이 에 대한 간격을 좁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자문사의 역량과 관련하여, 단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에 대한 기술적 지식 및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준 외 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 량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 이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나라 모 기업을 대리하는 자문사와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DGT를 상대로 본 사의 입장을 DGT에게 이해 및 설 득 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인적 네 트워크 역량을 갖춘 현지 자문사 를 선임하는 것도 성공적인 APA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조건이 다. 특히 In-bound APA와 달리, Out-bound APA는 분석대상기업 인 자회사가 소재한 현지에서 중 추적인 검토가 이뤄지나 국내 모 기업으로서는 시간적 · 지리적 차 이로 인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없 는 특징이 있습니다. Out-bound APA를 성공적으로 타결한다는 것 은 모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이 APA 상대국에서도 충분히 견지되는 것 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자문사가 모기업의 이전가격 전 략과 방향을 현지 자문사에 정확 히 전달하고 APA 진행상황이 어 긋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통제하 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신문]

권오혁외국변호사(tom.kwon@leeko.com) 김정홍외국변호사 (junghong.kim@leeko.

장연호공인회계사(yeonho.chang@leeko.

김민후외국변호사(steve.kim@leeko.com) 이병하세무사 (byoungha,lee@leeko,

아크릴 컷팅, 밴딩가공 **톰슨목금형**(톰슨발형)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mark>레이져컷팅</mark>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컷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톰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톰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능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져절단, 씨링칼, 톰슨금형, 특수 칼금형

Monthly Kofa 2023년 05월 10일 / 단기4356년 KD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인니 대표 라면 일부 제품, 발암물질 검출로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판매 금지



▲대형 수퍼에 진열된 인도미 라면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대만 타이페이 보건국은 현지에 서 팔리는 다양한 브랜드의 라 면들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인 도네시아산 인도미(indomie) 브 랜드의 라면 중 최소 한 품목에 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 표했다.

24일(월)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 르면 림프종과 백혈병을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진 에틸렌 옥사이 드가 인도미 아얌 스페셜(Ayam Spesial)의 스프 분말에서 검출됐 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6일 보 도했다.

타이페이 보건국은 해당 제품에 서 검출된 에틸렌 옥사이드가 대 만 보건복지부 농약잔류 허용기 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 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소매점 매 대에서 즉시 수거할 것을 명령했 다.

보건국 보도자료에는 해당 제품 을 수거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사 업자와 매장에 최소 6만 위안(약 260만 원)에서 최대 2억 위안(약 86억 원)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도미를 생산하는 인도푸드(PT Indofood Sukses Makmur)의 프 란시스쿠스 웰리랑(Franciscus Welirang) 이사는 25일(화) 기자 회견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인 도미 전제품이 인도네시아 식약 청과 수입국 당국의 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타이 페이 보건국의 발암물질 검출 발 표 관련 해명을 곧 내놓을 것이 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부는 시장에서 팔리는 각종 상품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성분 검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식약처가 설정한 기준

에 관해 현지 식품산업계가 자 체적으로 긴밀히 대응, 관리하 고 있다.

인도미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인스턴트 라면 브 랜드로 작년 까따다따 인사이트 센터(KIC)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88%가 인도미 제품을 소비한 다고 답했다.

인도미 제품들은 해외 80여 개국 으로도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호 주,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뉴질랜드 및 몇몇 아프리카 국가 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한편 타이페이 보건국은 인도미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알라이 화 이트 카레(Ah Lai White Curry) 라 면에서도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 출되었다고 밝혔다. 인도미의 경 우 스프 분말에서만 해당 물질이 검출된 것이 반해 알라이 제품은 스프 분말은 물론 면에서도 검출 됐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앞서 언급한 특정 암을 유발시키는 것 외에도 피부와 눈의 심각한 가려움증,유 전학적 결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스타(The Star)지에 따르면 대 만 당국이 해당 내용을 발표하 자 말레이시아 보건부도 26일(수) 문제의 인스턴트 라면 두 개 품목 전량에 '자발적' 리콜을 명령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보건국장 무

하마드 라지 아부 하산(Muhammad Radzi Abu Hassan)은 알라 이 화이트 카레 라면 생산회사가 현지 보건기준을 준수해 왔으므 로 이번 리콜 명령은 식품안전을

보다 공고히 한다는 차원의 조치 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는 문제의 라면 샘플을 연구검사소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인도푸드와 인도네시아 식 약청은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해 당 품목에 대해 아직 판매 금지 나 제품 수거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수출 유망국 인도 · 인니 · 호주 · 방글라에 주목

코트라 '수출 유망 9개국' 보고서… "어려운 여건 속 기회 찾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 소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라)는 세계 경기 둔화 국면 속 에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수출 유 망국 9' 보고서를 펴냈다고 25일 밝혔다.

코트라는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는 세 나라로 인도, 인 도네시아, 멕시코를 꼽았다. 이들 3개국은 한국의 수출 상 위 15위 내 국가로, 자국의 제 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글 로벌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데다 인구 1억명 이상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코트라는 짚었다.

이어 코트라는 최근의 국제 자원 가격 상승으로 자금이 몰리는 국가로 아랍에미리트 (UAE), 호주, 캐나다 3개국을

발전 및 관련 장비, 전기차, 충 전소 등의 수요가 높고 인프 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나 기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경제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을 소 개했다.

김태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 본부장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우리 수 출이 증가하는 시장이 있다" 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망 시장과 기회 요인을 찾아 우 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22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 재외언론 정체성 - 역할 정립 논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 경북 영덕군 등 후원…20개국 100여명 참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뉴미디어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재외 언론의 정체성 과 역할을 바로잡자는 기치 아래 '제22회 세계한인언론 인대회'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막됐다.

'재외 언론인, 나는 누구인 가'를 주제로 세계한인언론 인협회(회장 김명곤·이하 세 언협)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 는 20개국에서 100여명의 동 포 언론인이 참가했다. 연합 뉴스, 재외동포재단, 경북 영 덕군 등이 이번 대회를 후원 했다.

김명곤 회장은 개회사에서 처음 펜을 들었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재외 언론인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2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개막했다. 개막 식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며 언론인으로서의 각오를 새롭 게 하고자 한다"며 "(뉴미 디어의) 난립 속에서 한국 언 론의 신뢰도는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언론 에 내려진 정언명령은 단연코

'신뢰회복'이란 결론에 도 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환영 사에서 "오는 6월에는 750 만 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 포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 는 동포 언론이 재외동포 사 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 면서 권익을 신장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 합회 이사장은 "재외동포사 회의 소통과 구심점 역할을 해온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촉진되도 록 우리 국민과 정부의 관심 이 정책적 지원 대책으로 뒤 따라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은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 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재 외 언론인은 각국 동포사회에 우리 말과 글로 모국의 소식 을 전달함으로써 한민족 정체 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외빈으로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김덕룡 세계 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이상기 아시아N발행인, 조롱 제 재외동포포럼 회장, 권태 일 재외한인구조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 원장, 임종성 ·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영근 세계한인네트 워크 회장, 김광열 경북 영덕 군 군수 등이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개막식 후 연합뉴스 주최 환 영 만찬이 이어졌다.

개막식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부터 서울 시민청에서는 재외 언론 정체성 · 역할 논하는 국 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 엄에서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재 외언론인 나는 누구인가... 재 외 언론인의 정체성을 찾아 서',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 송학과 교수는 언론인과 시대 정신… 리영희 선생을 중심으 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 고 참가자들과 토론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한동섭 한 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과 교수가 '재외 언론의 현 재와 미래… 재외 한인언론의 기능과 역할',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 언론 인과 직업윤리… 한국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주제로 강연 후 종합 토론을 벌인다. 참가자들은 26일부터 28일까 지는 경상북도 청송군과 영덕 군, 포항시 등을 방문해 관광, 산업, 특산물 등을 소개하기 위한 취재 활동도 펼친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세계 40여 개국 180여 개의 한글 매체가 회원사로 가입된 문 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으로 재외동포 언론의 발전과 상호협력, 해외 언론인들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 재외 동포 사회의 발전, 거주국과 대한민국 간 관계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2002년 출범 한 단체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르바란 명절에 확진자 늘어… 전파력 강한 XBB.1.16도 검출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르바란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인도네시 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 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16도 검출되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2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 면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지 난 18일 인도네시아의 일평 균 확진자 수(최근 7일 기준) 가 986.71명을 기록, 1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1천명 아 래로 내려간 뒤 지난 2월에는 100명대로 떨어졌지만, 지난 달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이다.

특히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르바란 연휴가 시작되면서 인 도네시아 보건 당국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 부는 이번 르바란에 1억2천 만명이 넘는 인구가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1.16까지 검출되 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목동자리 가장 큰 별의 이름

별칭을 얻은 XBB.1.16는 최 근 인도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감염되면 결막염 증세가 나타 나는 특징이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XBB.1.16의 전파력이 이 전 XBB.1이나 XBB.1.5보다 1.17~1.27 배 강하고 코로나 19 항체에 강한 저항력이 있 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조코 위도도 대통 령은 성명을 통해 "현재 코 로나19가 다시 증가하고 있 지만 과민반응 할 필요는 없 "안전하다고만 다"면서도 생각하지 말고 정부의 권고 에 따라 백신 예방 접종을 받 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강 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 는 2021년 1월 1차 확산 때 1만4천명, 6~7월 델타 변이 발 2차 확산 때 5만6천명, 지 난해 2월 오미크론 변이발 3 차 확산 때 6만4천명까지 각 각 늘었다.

하지만 백신 접종 등으로 빠 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지난해 말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각 을 따 '아르크투르스'라는 종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연합뉴스]



株金社 三湖 보일러 SAMHO BOILER CO., LTD.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 인 대 Hp: 0811 834 398

한 상 윤 Hp: 0822 9999 1447 Fax

Tel

hanshinyu@hotmail.com 021 5980 222 / 5982 666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Monthly Kofa 2023년 05월 10일 / 단기4356년 KD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재외동포 대학생 500명 '정체성 함양' 모국 방문 동포재단 7~8월 모국 연수… 5월 9일까지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 대학생 500명이 정체 성을 함양하기 위해 모국을 방 문한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7~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를 모 집한다고 13일 밝혔다.

5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 동포 대학생 또는 예비 대학생으 로 만 18~25세이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1차 연수는 7월 18~25일이며, 2차는 8월 1~8일이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에 한국어 를 배우고 서울과 지방의 역사문 화유적지 탐방 등 한국문화 체험 을 한다.

또 세계 시민의식, 환경, 통일 등 을 주제로 토론하며 국내 대학생 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도 나 선다.

한국어가 능숙하거나 학업 분야 관련 수상 경력이 있으면 우선 선발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왕복 항공료 50%를, 멕시코·쿠바 한인 후 손·입양인 자녀에게는 항공료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재단은 연수에 함께할 국내 대학 생 100명도 모집한다.

재단 관계자는 "참가자 간 소 통과 유대감 형성 기회를 제공하 고, 모국의 사회 · 역사 ·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연수"라고 소개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현지 한국 공관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심의를 거쳐 5월 29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 항은 코리안넷(www.korean.net) 을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직장에서 신는 신발, 가장 원하는 기능은 '편안함'

소비자가 작업화를 고를 때 원하는 바는 분명하다. 최 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5%가 작업화에 원하는 최고 우선순위 요소는 "편안함" 이었다. 그 다음으로 디자인 (68%), 내구성(63%), 다목적 성(43%)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단 응 답자 중 단 21%만이 "격 식"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신을 최고 우선순 위 디자인은 "애슬레틱"이 었으며 그 다음이 "캐주얼" 디자인이었다. 응답자의 대부 분은 업무 환경 거리가 멀수 록 현장에서 신발을 갈아 신 기보다는 현장에서 신은 신발 그대로 퇴근하길 바란다고 답 했다.

응답자 중 20% 가량은 자택 또는 직장에서 일한다고 응답 했으며, 대다수는 현장 또는





답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작업화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정장풍 보다는 캐주얼한 디자인이 주 류를 이루고 있지만, 응답자 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은 정장 풍과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양 분되어 있었다.

한편 응답자 중 22%는 현재 업무용 복장이 점점 캐주얼한 디자인이 되어간다고 답한 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면 23%는 지난 해보다 정장 풍이 되어간다고 답했다.

> MESH01이 수행한 이 설문 조사에는 420명의 응답자가 참여했으며, 설문에 참여한 남녀 근로자들은 활동적이며 아웃도어를 즐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 MESH01 플랫폼에서 수행된 이 조사에서는 활동적 이며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KOFA의 힘 광고를 제안합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완제,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 1)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2,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0821 1122 8827(mr. kang)

















SOLUTIONS

파 매 Ci

점검관리

소형 5kVA ~ 220kVA

수리

중형 250kVA ~ 700kVA

유지, 보수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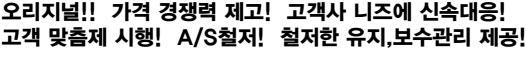
대형 800kVA ~ 4,000kVA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0812 9012 2019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pusat_BGT@yahoo.com

2023년에 주목해야 할 업계 예측 지표 4가지

지속가능한 신뢰 요인 소비자들이 점점 잘못된 주장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2023년 에는 주류 라이프스타일 화제에 투명성에 대한 바람과 함께 지 속가능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 서는 #saynotogreenwashing가 국제유기섬유인증기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GOTS) 가 내세운 성공적인 미디어 캠 페인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그



린워싱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 다. 1986년 환경운동가인 제이 웨스터벨드(Jay Westerveld)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고객에 게 수건을 재사용할 것을 요청 하는 호텔을 가리켜 이 용어를 만들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가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 례의 42%에서 친환경 관련 주 장이 과장됐거나 거짓이거나 기 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섬 유 업계 경영진도 최근 소비지 들이 브랜드와 소매업체. 그리 고 업계에 추적가능성과 신뢰성 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 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무엇 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한다" 라고 라이크라 컴퍼니의 에브루 오제이딘(Ebru Ozaydin) 경영진 은 말했다.

2023년의 유행 색상, 마젠타 글로벌 색상 예측 전문기업인 팬톤(Pantone)이 2023년을 대 표할 색상으로 비바 마젠타(Viva Magenta)를 선언했다. 팬톤은 비바 마젠타를 가리켜 레드 색 상과 비슷하게 생동감이 있으며 진홍색 톤을 띠고 있으며 "열 광적이며 경계 없는 분위기"에 제한 없이 실험과 자기 표현을 나타내는 색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대의 분위기를 규정하는 대 표인 팬톤은 비바 마젠타를 비인습적인 시대의 비인습적인 분위기"라고 간주했다. 그렇다 면, #magentaverse는 앞으로 일 년 동안 섬유업계의 예측과 어 떻게 비교될까? 섬유 공급업체



들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대다 수의 섬유 공급업체들은 2023 년의 사업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비바 마젠타 수준의 풍요로움과 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여러 업

계 경영진들은 "긴 터널 끝의 불빛"을 보고 있다고 답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실용적인 낙 관주의"를 시사했다.

부산진구, 신발 · 커피산업 육성 지원책 발굴



부산진구는 신발·커피산업 의 육성을 위해 관내 신발제 조업체와 서면?전포지역 커 피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달부터 오는 5월까지 전수조 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취합된 신발 제조업체의 정보, 주력상품, 제품 사진 등 관련 자료는 올 해 개설 예정인 신발산업 성 장거점 특구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지역 소공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 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진구는 커피산업육 성을 위해서 전포카페거리, 전리단길, 전포사잇길을 대상 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영 도, 온천천 등과는 차별화된 부산진구 환경에 적합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신발·커피산 업은 다양한 이유로 개업과 폐업이 빠르게 발생해 사업 체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화된 자료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관련 업체의 적 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부산일보]



ELECTRIC MATERIAL

- Manufacturing Assy Cikarang
- Trading / Import Korea & China
- Small Qty Can Be Accepted

LED HIGHBAY 100W/150W



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IP 65 Power factor: 0,95

CCT: 6500k





Price 18W Rp 60.000 Lumen : 2100 Lm CCT: 6500K

Input Power: 1 Sisi / 2 Sisi



LED STREETLIGHT - FLOODLIGHT - DOWNLIGHT - FLATLIGHT

ELECTRIC ITEMS













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Lt.4 JI Kramat Raya No.101, RW. 01 Paseban, Senen, Jakarta Pusat Telp: +6221-3104414

Cikarang Ware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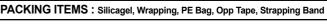
JI Industri Utara 4 Blok SS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Cikarang Utara Contac Person 0815-1902-4272



MRO GLODOK

SAFETY/PACKING/SPARE PARTS/ TOOLS/SAFETY/EQUIPMENT

- Delivery Onsite From Glodok
- Alternative / optional brand or technical conditions























TOLLS & CONCUMABLE ITEMS: Hand Tools, WD 40









SAFETY/HSE ITEMS







FACTORY EQUPMENT AND SPARE PARTS









1 Monthly Kofa 2023년 05월 10일 / 단기4356년 KDFA 제인니한국신발업의회

운동화 앞뒤로 다 신네?… 아<mark>톰부츠</mark> 만든 그 브랜드 또 파격



미군 아버지 둔 한국계 디자이 너가 설립. 일본 애니메이션 '우주소년 아톰'이 연상되는 이른바 '아톰 부츠'를 만들었던 예술 집단이 이번엔 앞뒤 없는 '양면 운동화' 출시를 예고해 패션계를 달구고 있다. 미국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 '미스치프'(MSCHF)가 앞뒤 양방향으로 신을 수 있는 운동화 'BWD'를 출시한다.

이 운동화는 신발에 두 개의 입구를 만들어 취향에 따라 스타일링을 다르게할 수 있도록한 것이 특징이다. 언뜻 일반적

인 운동화처럼 보이지만 한 쪽으로 발을 넣을 경우 발가락이 드러나는 오픈토 디테일의 운동화로, 반대쪽으로 발을 넣을 경우 뮬처럼 신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신발은 오는 4월 11일미스치프 앱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않았다.

앞서 미스치프는 지난달 16일 출시한 '빅 레드 부츠'로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관심을 받 았다. 팝 가수 시에라, 릴 웨인, SNS 스타 위즈덤 카예, 가수 전 소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 장 등이 이 부츠를 신은 사진 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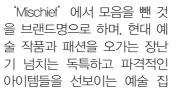
아톰 부츠'를 연상케 하는 이 부츠는 출시된 지 불과 몇 분만 에 완판됐고, 중고 거래 시장(리 셀 시장)에서는 출시가 350달 러(한화 약 45만원) 대비 약 3 배 넘는 가격인 1300달러대(한 화 약 170만원)에 거래되고 있 어 이번 신제품인 양면 운동화

'BWD'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부츠는 아톰의 신발이 연상 돼 '아톰 부츠'라고도 불리지 만, 미스치프는 미국 TV 만화 시 리즈 '도라의 모험'에 등장하 는 캐릭터 중 말하는 원숭이가 신고 다니는 신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미스치프는 지난해 10월에는 깁스 모양의 신발을 출시하기도 했다.

한편 미스치프(MSCHF)는 2016 년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가브리엘 웨일리가 설립한 브랜드다. 어린 아이들의 장난을 뜻하는









단이다. 2주에 한번 신상품을 출시하며, 모든 아이템은 재발매 없이 한 정된 수량만 판매된다.

[머니투데이]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렛서

콤프렛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생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0812 8037 0303 | 한상윤: 0822 9999 1447 | Mariono: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패션, 2023년 풋웨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다



▲살로몬 글라이드 맥스 트레일: 밝은 색상과 믹스된 자연적인 톤

기능성 러닝화에서 볼 수 있 답론을 강조할 방안을 찾고 는 대다수의 기술처럼, 러닝 화의 미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브랜드들은 패션, 예술, 스트리트 문화, 기 술, 그리고 심지어 우주 탐사 에서 영감을 받아 역동적이고 참신한 방법으로 기능과 디자 인을 혼합하고 있다.

이처럼 진화하고 있는 러닝 화 업계 내부를 보면, 풋웨어 의 물리적 외관, 즉 색상, 질 감, 브랜딩 등 기타 여러 요소 를 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 들이 여러 달에 걸쳐 직관과 여러 연구를 결합하여 소비자 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 고 있다.

"예측가능성의 시대가 사라 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의 세련됨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뉴발란스의 사라 테 니(Sarah Tenney) 디자인 디 렉터는 말했다.

다음은 최근 리닝화 패션업계 를 탐구한 내용이다.

지속가능성과 미적 측면의 결합

특히 미드솔과 어퍼 소재에 지속가능성을 빠르게 받아들 이고 있는 브랜드가 늘어나 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서, 풋웨어 브랜드들이 시각 적인 방법으로 환경에 대한

클 미드솔 사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지속가능성을 미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내 다봤다.

"지속가능성의 미적 특징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

젠더리스 디자인

과거에는 남성용 러닝화는 주 로 네이비 블루나 차콜 같이 어둡고 짙은 색상이, 여성용 러닝화는 핑크나 퍼플 같은 색상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색상의 성별 간 경계가 점차 흐려졌다. 이 에 따라 브랜드들은 남성용과 여성용 모델이 색상을 공유할 수 있는 보다 통합된 색상을 포용하게 됐다.

"이는 생활방식에서 시작됐 으며 기능성 러닝화까지 확 장됐다"고 아식스의 폴 랭 (Paul Lang) 머천다이징 책임 매니저는 설명했다.

젠더리스 색상이라는 개념은 오트밀, 샌드 및 그레이 같은



▲아식스 님부스 25 라이트 쇼" 강화된 디자인과 젠더리스 색상의 조화

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통통 튀는 밝은 색상과 이 같은 자 연 친화적인 톤의 색상을 결 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여러 브랜드들은 아이보리,

토프, 모스 그린 같은 색상을

포함해 지속가능성의 분위기

를 풍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알트라의 셸비 트로(Shelby

Trueax) 색상 및 트렌드 디자

이너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파스텔 톤의 색상, 특히 흐릿

한 핑크나 블루 같은 밝은 색

상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특

히 레이싱 제품에 대담하면서

도 활기찬 색상이 여전히 인

톤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뉴발란스의 메레디스 내쉬(Meredith Nash) 전략사 업 매니저는 브랜드들이 스펙 뉴트럴한 색상에 뿌리를 내리 고 있다. 한편, 뉴발란스는 팀 버울프라는 명칭의 보다 부드 러운 베이지 색상을 개발하고

심지어 투박한 트레일화도 이 같은 젠더리스 미적 특징

을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초 에 출시된 알트라의 론 피크 라고 내쉬 매니저는 말했다. 7(Lone Peak 7)은 눈길을 끄

는 퍼플 색상의 아웃솔과 피 치 색상의 미드솔을 적용한 남성용 제품이다.

"유동성이 많다. 앞으로 기 능성 러닝화 전반에서 이 같 은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이키, 2023년 3Q 매출 전년동기대비 3% 상승

미국 스포츠웨어 대기업 나이 키가 과잉 재고를 지속적으 로 줄여나가면서 2023년 회 계연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 기 대비 14% 상승했다고 보 고했다.

"나이키의 3분기 결과는 소 비자 직접 판매 가속화 전략 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입증 한 것이다. 강력한 제품 혁신 을 동력으로 삼아 소비자와의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브랜 드 모멘틈을 발판으로 한 디 지털 장점을 활용하여 변동 성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 이 운영을 했다. 그 결과 가치 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존 도 나휴(John Donahoe) 회장 겸 CEO는 설명했다.

3분기 결과

2월 28일에 종료된 3분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해 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환율 중립 기준 을 근거로 하면 19%가 성장 했다.

나이키 산하 브랜드별로 따 져보면, 3분기 나이키 브랜드 매출은 118억 달러를 기록 해 전년 동기 대비 14%(환율 중립 기준 19% 성장) 성장한 반면 컨버스 매출은 총 6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해 8%(환율 중립 기준 12% 성장)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나이키는 직접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환율 중 립 기준 22% 성장) 성장해 총 53억 달러를 기록했고 도매 매출은 12%(환율 중립 기준 18% 성장) 성장했다고 보고

반면 나이키의 3분기 매상 총 이익은 "전략적 가격 조치로 부분적으로 상쇄되긴 했지만 재고 판매를 위한 높은 할인 율, 순외환 환율의 지속적으 로 불리한 변화, 높제품 투입 원가 상승, 운임 및 물류비 증 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30베이시스 포인트 하 락해 43.3%를 기록했다.

현 회계연도 3분기에 나이키 의 순수익은 11% 감소해 12 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주당 이익은 0.79달러였다.

출처: Worldfootwear



12 Monthly Kofa 2023년 05월 10일 / 단기4356년 KDFA 제인니한국신발업의회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PRODUCTS



ST-6040HS-C3 3-컬러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666H(**롤러 1본침**), ST-777H(**롤러 2본침**)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168 Series

APPLICATIONS





CIKARANG OFFICE

Ruko Podium Blok A No. 1 dan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17550 **TEL** 021-2210-4936 **FAX** 021-2210-4994 021-2210-4937

JEPARA OFFICE

REMBANG OFFICE

JL. Panglima Sudirman No. 156 6 RT. 002 RW. 03 Kabonganlor, Rembang, Jawa Tengah **TEL** 0295-698-3799